

“당 대표 경험은 큰 자산...4·7 보선 승리로 보답하겠다”

“신북지와 혁신성장이 시대정신...국민 삶 보호가 시대과제”

“윤석열 잘 몰라...지지율?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

이낙연 민주당 대표 퇴임 기자회견담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당 대표 경험은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며 4·7 보궐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의 오랜 숙원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 느꼈고, 당 대표 기간 동안 422건 법안 포함 480건 안건 통과했다”면서 “문재인정부 성공과 대한민국 발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북지와 혁신성장이 시대정신”이라면서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시대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굴뚝산업에 의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므로 혁신성장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신북지에 대해 ‘회복과 도약을 포용으로 실천하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신북지제도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할 최저기준과 국민이 지향할 적정기준을 담은 종합적 복지제도이고, 기본소득은 그중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화 드리려는 제도”라며 “두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인으로서 장단점을 묻자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그분을 잘 모른다”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온 것이 접촉의 전부”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급등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서 “검찰개혁 특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종교계 내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므로, 그것을 감안해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될까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초 제안했던 사면론에 대해 “언젠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퇴임 소식을 알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다.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려분께 격정을 드러 뵈시 송구스럽다.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다”고 말했다.

또 “우선은 4·7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며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퇴임 첫날부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권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는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자”며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이나 그 이전부터 교육 불평등에 놓이고 그것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면 너무 가혹하다. 그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된다”며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과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이낙연 찾아 덕담 “거대 여당 잘 이끌었고 고생하셨다”

윤석열 향해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 미래지향적 정치로 경쟁해 주시길”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국회를 방문,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이낙연 대표를 만나 “그동안 거대 여당을 잘 이끌었고 고생하셨다”는 덕담을 건넸다. 또, 최근 대선 주자 1위의 지지율을 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구태정치를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 참석차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대표의 마지막 임정을 응원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며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 실제로 큰 성과를 내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대여당을 이끌어 내는 걸 (이 대표가) 잘 해내셨다고 생각한다. 본인 이 조금 손실을 봤을 수 있지만 감사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권의 대선 주자 1위인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을

제치고 여야를 통틀어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지율이라는게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여러 지지자들이 있을텐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당연히 정치할 것”이라며 “다만 구태정치를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 정치로 경쟁해주시면 우리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대선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결정을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이 하게 된다. 국민이 누가 일을 잘하나 끊임없이 살피고 계산 것이고 성과를 내고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대리인이 누군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 138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정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잘 맡는 게 국민에게 부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어서 선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게 됐다”고만 말했다. 또 차기 민주당 대표 후보들에게는 “국가의 미래와 당의 미

래를 위해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되더라도 무리없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정당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받고 기대받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특정후보에 대해 말씀드리진 않는다”고 했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할 때 나라가 망했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조사하고,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거나 부정부패를 한 분에 대해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분노하시고 지금이 상당히 큰 위기일 수도 있지만 위기가 기회이기도 한 것이니까 이번 계기로 전면적인 조사,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공직자 투기가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내년 대선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날 퇴임하는 이낙연 대표와 당무위 전에 별도로 5분 가량 차담을 하고 서로 덕담을 나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1년전 지지율 1위 후보 대선 결과는?

이회창, 1.6% ‘노퍽’에 꺾여 반짝 1위 반기문은 출마 포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은 대선 후보들에겐 잔인한 시간이다. 유력 주자와 여론 흐름이 형성된 가운데서도 후보주자가 돌풍을 몰고 올 여지가 있는 역동적인 ‘회색’의 시간이다.

과거 유력 주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반전 신화의 대표적 사례로는 2002년 16대 대선 이 꼽힌다. 선거 1년 전인 2001년 12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31.6%의 지지율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로 새천년민주당에서도 군소 후보에 불과했다. 그러나 광주경선 승리로 노퍽(노무현 바람)이 몰아치며 대통령 후보가 된 그는 우여곡절 끝에 대선에서 48.9%를 받으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 후보는 46.6%로 패했다.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정적 1위로 상황을 관리해가며 무난하게 당선됐다. 2007년 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49.2%를 기록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대선에서 48.7%

의 득표율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26.1%)에게 압승을 거뒀다.

18대 대선 1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간의 선두 각축 양상이 펼쳐졌다. 2012년 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31%, 안 후보는 28%를 기록했다. 민주당 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10%였다. 그러나 안 후보는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의 단일화 협상 끝에 불출마를 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진 2017년 19대 대선 1년 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2016년 6월 반 전 총장은 25.3%의 지지율로 문 대통령(22.2%)에 앞섰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준비 부족과 정치적 부재를 드러내며 지지율 급락을 경험하다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현재는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가 뚜렷하다. 지난 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2.4%, 이 지사는 24.1%를 각각 기록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1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번 지지율이 출렁거리며 경쟁 구도가 변할 것이다.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